

국도 5호선 개선사업 국비

홍천 37억·횡성 55억 확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2017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홍천·횡성) 의원은 아울러 '국도 42호선 인홍리위 위험·병목지점 개선사업 등의 명 함도로 개량사업을 위한 국비 5 억으로 홍천군은 관련 국비 37억 4000만원을, 횡성군은 관련 국비 54억9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고 26일 밝혔다.

홍천군의 경우 '국도 5호선 하 오안리 입체교차로 사업(국비 23 억4000만원)'이 병목지점개량 5 단계 기본계획에, '국도 31호선 내면 방내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국비 14억원)'이 위험도로 개량 5단계 기본계획에 각각 추가 반 영돼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수될 예정이다.

횡성군의 경우 '국도 5호선 횡 성 입석리 통로박스 개선사업(국 비 45억9000만원)'이 병목지점 개량 5단계 기본 계획에 추가 반 영돼 보행로를 포함한 통로박스 가 1개소 추가 설치된다.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착 수될 예정이다. 또 '용둔리 교차로 개선사업 (국비 4억원)'이 이 계획에 추가 반영돼 내년 실시설계를 하고,

광주시, 전국 첫 '건설공사 설계예고제' 도입

〈50억이상 종합공사·10억이상 전문공사 설계 확정 전, 관련업체·시민에 미리 공개〉

광주시가 건설공사를 둘러싼 찝짜미와 특혜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총인사설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 심사위원, 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뇌물수수과 찝짜미 등으로 처벌받은 불명예를 씻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세부설계 예고제 시행, 평가위원 확대·연임금지 등을 통해 대규모 건설공사의 찝짜미와 특혜 제공 등 각종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우선 설계 확정 전 세부 설계

비리·특혜 차단 방안으로 평가위원회 10명으로 확대 자재·공법도 사전공개 결정

내용을 1주일 동안 사전 공개해 관련업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부설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부설계 예고제는 5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10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시설물 규모, 형식, 노선대안, 공법, 자재 등 주요 설계 내용 전반을 미리 공개해 업체와 시민의견을 받고 나서 설계안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는 법이나 조례 확정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제와 비슷한 것으로, 특정업체를 겨냥한 이른바 '맞춤형 설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광주시는 기술용역평가 평가위원 후보수를 현재 203명에서 455명으로 대폭 늘려 업체 측의 평가위원 사전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숫자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소속별(대학, 기관) 위원 수도 최대 2명 이하로 줄였다.

평가에 참여한 특정 위원이 전체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려고 등급별 가중치도 현재 5%에서 3%로 낮

췌다. 이 밖에도 공사에 사용되는 특정공법과 자재를 현행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개선,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한 '공법·자재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공사의 설계 평가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와의 유착을 막고자 50명으로 구성된 설계심사분과위원회의 연임도 금지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선이 본격 시행되면 능력과 기술로 승부를 겨루고자 하는 업체의 참여 기회가 늘고,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